

## 송년소감

(2018한해를 떠나 보내면서一)

올 한해도  
세상에 의시대면서,  
비틀비틀,  
질퍽질퍽,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떠들어 대면서,

짐승성질을 마구 부리면서  
알수없는 행동들로...  
그냥 또 한해를 홀리 보냈습니다.  
저-도시의 황홀한 피임과 거짓된 영광속에  
정신한번 제대로 못차렸고

하늘진리는 멀리 잊은채,  
땅의 찰라적 평화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를 잃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오늘은 또다른 어제의 탐욕적 삶의 연장선,  
하루하루,진실되게 한순간을 충실히 살라는 스승님말씀은 다 어디로가고,  
감동은 그때뿐,

실천은 공염불.  
세상과의 또 한바탕싸움으로,  
허기진 마음들은 정리도 못한채,  
또 그렇게 한해를 보냈습니다.

연초에 품은, 거룩한 희망적 삶들은 시나브로 탐욕의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이내몸은  
다 자란 짐승이 되어서, 시간만 죽이고 마지못해, 공간과인간과 시간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노예로 남아 그렇게 또 끌려다녔습니다.  
아! 다석선생님~  
아! 박영호 선생님~

2018. 12.12일 새벽에